



「사랑의 손길」은 '천주교 서울대교구'와 '한마음한몸운
동본부'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
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중곡종합사회복지관

1인 가구의 '고독사'를 예방하고 살 수 있는 '공간'을 만들어주세요!



“나 같은 사람은 밖에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. 어딜 가겠
어요. 공원도 하루 이틀이지.”

“그냥 편하게 갈 곳이 있고,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‘대화’
를 하고 싶어요”

‘고독사’라고 들어보셨나요? ‘고독사’는 가족, 친척 등 주
위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
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, 3일 이후에 발견되는
죽음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.

2018년 저희 복지관 인근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50
대 여성분을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어서야 집주인이 발견
한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일은 저희 복지관에 많은 고민거리
를 주었고, 특히 홀몸 노인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
년,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게 된
계기가 되었습니다.

이후 저희는 중장년 또는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
자 고독사 위험이 큰 사회적 고립가구를 직접 찾아다녔습
니다. 이분들의 경우 생활환경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 반
지하, 고시원, 모텔 등을 돌며 복지관을 소개하고 도움을
요청하신 분들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.

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2020년과 2021년 현재까지 약
160명이 넘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만나며 관계를 쌓을 수
있었습니다. 관계를 쌓으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,
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먹거리 지원, 경제적 도움도 아

닌 ‘그냥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’이라는
걸 알게 되었습니다. 이분들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도
움도 요청할 수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고립된 삶에서 홀로
‘버티고 계신’ 분들이었습니다. 더욱이 2020년 창궐한 코
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‘외로움’,
‘고립감’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중곡종합
사회복지관은 이들을 도와드리고자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
쌓아갈 수 있는 ‘공간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1.5평 정도밖
에 되지 않은 고시원,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,
궤퇴한 여관방에서 나와 ‘밝고 넓은 공간’에서 사람을 만나
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. 관계가 쌓인다
면 더는 ‘고립된 삶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이런 ‘공간’은 저희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.
그래서 공간 구성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‘공간’을 만
들려고 합니다. 윈스턴 처칠은 ‘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
은 사람을 만든다.’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
께 만든 ‘공간’은 결국 고립된 사람들에게 관계를 만들어주
고 누군가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처럼 한
없이 소중한 ‘공간’을 만드는 데 동행해 주실 분들의 손길을
기다리겠습니다.

* 모아주신 후원금은 전액 **중곡종합사회복지관**에 지원되어 사람들이 모여
서 함께 할 수 있는 **공유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, 설비, 시설
마련 및 이들이 ‘살’과 ‘힐링’, ‘따스함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할 수
있는 프로그램 운영** 등 사업에 쓰여 질 예정입니다.

후원계좌 | **우리은행 1005-180-003488 (재)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**
2021년 11월 6일~12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
‘중곡종합사회복지관’을 위해 쓰여집니다.

서울주보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금은 소
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
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

